

시청자 권익보호제도 핀란드편

2025.2



목 차

I. 미디어 복지국가(Media Welfare State) 핀란드	1
II. 핀란드 교통·통신 업무 총괄 기관 : 교통통신부(MOTC)	2
III. 핀란드 공영방송 Yle(Yleisradio)	4
IV. 시청자 권익 보호 대표 기관 : 교통통신청(Traficom) vs 대중매체위원회(CMM)	6
1. 교통통신청(Traficom, Finnish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gency)	7
2. 대중매체위원회(CMM, The Council for Mass Media)	9
IV.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방송 서비스 권리	11
1. 장애인 방송	11
2. 재난 방송	13
V. 시청자 권익 보호의 또 다른 중심 :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14
1. 핀란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강점	15
2. 핀란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가치와 원리	16
3. 핀란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장의 주체들	16
4. 핀란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특성	18

미디어복지국가(Media Welfare State) 핀란드

북유럽 국가들(Nordic countries)¹⁾은 전통적으로 언론 자유(freedom of speech)를 중시해왔다. 보편적인 미디어 서비스(universal services), 편집권 자유(editorial freedom), 미디어 문화 정책(a cultural policy for the media), 공·사 소유자와 협의에 기반을 둔 합의적·지속적 정책 결정 등의 원칙을 갖고 있는 점에서 이들을 ‘미디어 복지 국가(Media Welfare State)’라고 불러왔다.



1	Norway	31	Moldova	61	Ukraine	91	Papua New Guinea	121	Mexico	151	Cambodia
2	Denmark	32	Austria	62	South Korea	92	Guinea-Bissau	122	Lesotho	152	Pakistan
3	Sweden	33	Mauritania	63	Malawi	93	Haiti	123	DR Congo	153	Laos
4	Netherlands	34	Namibia	64	Sierra Leone	94	Senegal	124	Bolivia	154	Yemen
5	Finland	35	Dominican Rep.	65	Cyprus	95	Zambia	125	Peru	155	Tajikistan
6	Estonia	36	North Macedonia	66	Argentina	96	Chad	126	Singapore	156	Venezuela
7	Portugal	37	Seychelles	67	Hungary	97	Tanzania	127	Equatorial Guinea	157	Palestine
8	Ireland	38	South Africa	68	OECS	98	Serbia	128	Uganda	158	Türkiye
9	Switzerland	39	Australia	69	Congo-Brazzaville	99	Albania	129	Morocco / West. Sahara	159	India
10	Germany	40	Montenegro	70	Japan	100	Madagascar	130	Cameroon	160	UAE
11	Luxembourg	41	Cabo Verde	71	Comoros	101	Israel	131	Kuwait	161	Djibouti
12	Latvia	42	Slovenia	72	Andorra	102	Kenya	132	Jordan	162	Russia
13	Lithuania	43	Armenia	73	Malta	103	Georgia	133	El Salvador	163	Nicaragua
14	Canada	44	Fiji	74	Nepal	104	Angola	134	Philippines	164	Azerbaijan
15	Liechtenstein	45	Tonga	75	Kosovo	105	Mozambique	135	Hong Kong	165	Bangladesh
16	Belgium	46	Italy	76	Central African Rep.	106	Maldives	136	South Sudan	166	Saudi Arabia
17	Czechia	47	Poland	77	Guyana	107	Malaysia	137	Oman	167	Belarus
18	Iceland	48	Croatia	78	Guinea	108	Burundi	138	Guatemala	168	Cuba
19	New Zealand	49	Romania	79	Botswana	109	Mongolia	139	Algeria	169	Iraq
20	East Timor	50	Ghana	80	Niger	110	Ecuador	140	Lebanon	170	Egypt
21	France	51	Uruguay	81	Bosnia-Herzegovina	111	Indonesia	141	Ethiopia	171	Myanmar
22	Samoa	52	Chile	82	Brazil	112	Nigeria	142	Kazakhstan	172	China
23	United Kingdom	53	Côte d'Ivoire	83	Panama	113	Togo	143	Libya	173	Bahrain
24	Jamaica	54	Belize	84	Qatar	114	Mali	144	Rwanda	174	Vietnam
25	Trinidad and Tobago	55	United States	85	Eswatini	115	Paraguay	145	Somalia	175	Turkmenistan
26	Costa Rica	56	Gabon	86	Burkina Faso	116	Zimbabwe	146	Honduras	176	Iran
27	Taiwan	57	Mauritius	87	Thailand	117	Brunei	147	Bhutan	177	North Korea
28	Suriname	58	Gambia	88	Greece	118	Tunisia	148	Uzbekistan	178	Afghanistan
29	Slovakia	59	Bulgaria	89	Benin	119	Colombia	149	Sudan	179	Syria
30	Spain	60	Liberia	90	Northern Cyprus	120	Kyrgyzstan	150	Sri Lanka	180	Eritrea

※ 출처: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5792>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002년부터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역의 언론 자유 수준을 측정하는 ‘2024 세계 언론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²⁾에 따르면,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는 핀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다.³⁾

- 1) 북유럽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의 5개국을 지칭함. 이에 더해 그린란드, 페로제도, 네덜란드를 포함하기도 하지 만 일반적으로 5개국을 일컬어 노르딕 국가(Nordic countries)로 불림
- 2) 언론자유 지수는 각 국가의 언론인 및 언론 매체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집계하는 정량 평가와 언론인 및 학자, 인권 옹호자 등 언론 자유 전문가 수백 명이 100개 이상의 질문에 응답한 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함

이번 편에서는 미디어 복지 국가들의 시청자 권익보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제도와 정책의 미비점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춘 '핀란드'를 사례로 들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한다.

핀란드	국명	핀란드 공화국 (Republic of Finland)
	수도	헬싱키 (Helsinki)
	인구	556만 명 (2023년 기준)
	면적	33만 8,472km ² (한반도의 약 1.5배)
	언어	핀란드어 (87.6%), 스웨덴어 (5.2%)
	종교	루터교 (69.8%), 그리스정교 (1.1%)
	민족	핀란드인, 스웨덴인, 사미족 등
	정부형태	의원집정부제 (대통령중심제 + 의원내각제)
	의회제도	단원제
	주요인사	국가원수 - 알렉산더 스투브 (Alexander Stubb) 대통령 (2024년 3월 취임) 총 리 - 페테리 오르포 (Petteri Orpo) 총리 (2023년 6월 취임)
	GDP	3,005억 달러 (2023년, IMF 기준)
	1인당 GDP	54,008 달러 (2023년, IMF 기준)
	경제성장률	-1%
	화폐단위	유로(EURO)
	우리나라와 외교관계 수립	1973년 8월 24일

핀란드 교통·통신 업무 총괄 기관 교통통신부(MOTC, The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핀란드 교통통신부(MOTC, The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는 국가평의회(Finnish Government, Valtioneuvosto) 산하 12개 부처 중 하나로, 핀란드의 교통 및 통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 부처는 양질의 교통·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방송 정책 개발, 통신 및 라디오·TV 방송 규제, 통신 시장 활성화, 주파수 정책 운영, TV 사업권 발행, 사생활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정책 개발 등이 있다.⁴⁾

3) "한국 언론자유 지수 62위... 작년보다 15계단 추락", <한국기자협회>, 2024.05.03.,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5792>

4) 「국가별 ICT 시장동향 핀란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3.11.03, p. 6



- 명 칭** 교통통신부 (MOTC, The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 설립연도** 1970년
- 주요임무** 핀란드의 교통 및 통신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규제,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부처
 - **네트워크** 교통·통신 네트워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보급하여
사람, 상품,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
 - **서비스** 교통·통신 및 기상정보 등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 경제정책 수립을 통해
기업의 영업 활동 장벽을 해소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 발전을 촉진
 - **데이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데이터 환경 조성
 - **행정구성** 3개 산하 기관과 6개 자회사를 관리·감독



핀란드 공영방송

Yle(Yleisradio, Finnish Broadcasting)

핀란드의 유일한 공영방송인 Yle(Yleisradio, Finnish Broadcasting)는 대부분의 라디오 및 TV 채널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 규모의 방송망을 운영하면서 핀란드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2023년 Yle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인의 86%가 Yle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⁵⁾ 이는 Yle가 핀란드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Yle는 1926년 헬싱키에서 'Suomen Yleisradio'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58년 'Suomen Televisio'라는 채널명으로 TV 정규 방송을 시작했다.⁶⁾ 국영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며, 방송국 주식의 99.98%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재원은 핀란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공영방송세(Yle tax)로 조달되며, 광고는 방영되지 않는다. 현재 Yle는 3개의 텔레비전 채널, 6개의 라디오 채널, 12개의 언어⁷⁾로 방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⁸⁾

핀란드 공영방송 Yle는 Yleisradio Oy법(The Act on Yleisradio Oy)⁹⁾ 제7조에 따라 공영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Yle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다양한 정보, 의견 및 토론을 제공하고 상호작용의 기회를 마련하여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 핀란드의 문화, 예술 및 창작 활동을 제작, 개발 및 유지하며, 영감을 주는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
- 교육과 평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학습과 공부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종교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 방송에서 핀란드어 및 스웨덴어 사용자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사미어, 로마어, 수화를 포함한 기타 국내 소수 언어로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핀란드 문화유산의 보존을 지원하고, 관용·평등·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며, 소수자 및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국제 배포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유지한다.
- 법령에 의해 추가로 규정된 공식 발표를 방송하고, 비상 상황에서의 방송 준비를 담당한다.¹⁰⁾

5) Yle's Annual Report 2023, Yleisradio Oy, p. 8

6) 「방통위 핀란드 독일 공무국외출장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2019, p.23

7) 핀란드어, 스웨덴어, 북부 사미어, 이나리 사미어, 스콜트 사미어, 핀란드 수어 및 핀란드-스웨덴 수어, 로마니어, 카렐리아어, 영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8) <https://yle.fi/aihe/about-yle/finances>

9) <https://www.finlex.fi/en/laki/kaannokset/1993/19931380>

10) Yle's Annual Report 2023, Yleisradio Oy, p. 6



소개	<p>핀란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영방송</p> <p>1950년 결성된 '유럽방송연합 (European Broadcasting Union, EBU)'의 23개 창립 방송사 중 하나</p>
설립	1926년
채널	TV 채널 (3개), 라디오 채널 (6개)
소유	<p>핀란드 정부가 99.98% 지분 보유</p> <p>교통통신부 (MOTC) 산하 조직이지만, 운영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음</p>
수익원	<p>2013년부터 개인 및 기업이 납부하는 공영방송세 (Yle tax)로 운영</p> <p>연소득 15,150유로 (EUR) 초과자는 연간 최대 163유로 납부</p> <p>미성년자 및 연소득 15,150유로 미만자는 면제</p>
감독기관	<p>o 핀란드 교통통신청 (Finnish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gency, Trafico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le 운영 관련 감독, 상업적 운영 관련 차별화, 부당한 가격 책정 금지 광고 및 후원 금지 조항의 준수 여부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란드 방송법 제12a조 (Section 12a of the Act on the Finnish Broadcasting Company) - 유럽 프로그램 포함 의무 준수 여부, 독립 제작자 할당량 준수,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Yle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 금지 준수 여부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통신서비스법 (Act on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p>o 핀란드 의회 Yle 운영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 서비스 의무 이행 여부 감독 (민주주의, 다양성, 소수자 인권보호 등) - 이사회 및 사장 임명 권한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 제7조 (Section 7 of Act on the Finnish Broadcasting Company)

Yle는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공영 서비스 목표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교육, 엔터테인먼트 제공을 통해 핀란드 민주주의와 문화를 강화하며, 표현의 자유, 평등, 연대를 증진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Yle의 '2023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세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핀란드 문화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모든 시청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소수자 및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논의와 공동 경험을 나눌 기회를 제공한다.
- 핀란드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공공 자금으로 제작된 콘텐츠의 지속적인 제공을 보장한다. 그리고 미디어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전국에 걸쳐 지역 편집 사무소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비상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 창작 및 미디어 산업, 파트너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추구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발전한다.

또한 핀란드 방송법(Act on the Finnish Broadcasting Company 1380/1993)에 정의된 공영 서비스 의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

-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교육 및 학습 지원
- 국가 및 지역 문화 강화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그룹과 소수 집단을 위한 서비스 제공
- 비상 상황에서의 통신 보장

이처럼 Yle는 핀란드 국민의 신뢰와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모든 시청자가 양질의 방송을 시청할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청자 권익 보호 대표 기관

교통통신청(Traficom) VS 대중매체위원회(CMM)¹¹⁾

방송 정책 및 규제, 심의 등은 시청자가 양질의 방송을 시청할 권리와 방송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제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핀란드에서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교통통신청(Traficom, Finnish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gency)과 대중매체위원회(CMM, The Council for Mass Media)가 있다.

11) 핀란드어로는 Julkisen Sanan Neuvosto로 JSN으로도 표기함

두 기관은 공통적으로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지만, 역할과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교통통신청(Traficom)은 방송·통신 서비스의 기술적·법적 보호를 담당하는 반면, 대중매체위원회(CMM)는 언론의 윤리적 책임과 자율 규제를 통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한다.

	교통통신청 (Traficom) Finnish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gency	대중매체위원회 (CMM) The Council for Mass Media
직장	정부기관	비정부 독립기구
역할	미디어 및 통신 규제, 시청자 보호	언론 및 방송 윤리 감독
목적	방송·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및 접근성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성
보호대상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뉴스 및 미디어 소비자
권한	법적, 행정적 제재 권한 보유	윤리적 권고 및 권장 수준의 결정 권한
대표활동	디지털 방송 품질 관리, 미디어 안전성 강화	언론 보도 감시, 시청자 민원처리

1. 교통통신청(Traficom, Finnish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gency)

핀란드 교통통신청(Traficom, Finnish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gency)은 교통통신부(MOTC, The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산하 기관으로, 사람·데이터·상품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관은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고품질이면서도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핀란드 국민이 온라인 서비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방송, 통신 및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¹²⁾

TRAFICOM

Finnish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gency

명칭	교통통신청 (Finnish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gency : Traficom) 핀란드의 교통통신부 (MOTC) 산하 행정기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전한 교통 및 통신 연결과 서비스 보장 ○ 핀란드의 사이버 보안 강화 ○ 교통-통신 관련 면허 등록 및 감독 업무 수행, 개인과 기업 지원
조직	8개 부서, 5개 네트워크로 구성
통신 관련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 도메인 : 도메인 신청자와 사용자,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 정보 제공, .fi 분쟁 관련 정보 제공 ○ 광대역 인터넷 및 전화 : 전화 및 광대역 가입 정보 제공 가입자의 권리 및 해외 모바일 사용 방법 안내 ○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서비스 : 디지털 및 데이터 규제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데이터 경제 촉진을 위한 활동 지원 ○ 우편 서비스 : 우편 서비스 및 우편물 배달 관련 정보 제공 ○ 라디오 허가 및 주파수 : 라디오 시스템 및 허가, 적법한 라디오 장비 및 주파수 사용 정보 제공 ○ TV 및 라디오 : TV 수신 상태 관련 정보 제공, 방송시에 대한 TV 및 라디오 방송 허가 업무 수행 ○ 통신 네트워크 : 주파수 계획 및 사용 관리, 디지털 실험 및 기업 라디오 네트워크를 위한 주파수 정보 제공, 통신 시장 경쟁 촉진과 네트워크 구축지원
관련 법률	<p>국경 간 금지명령 절차에 관한 법률 (Act on Cross-Border Injunction Proceedings)</p> <p>Yleisradio 운영에 관한 법 (Act on Yleisradio Oy)</p> <p>전자통신서비스법 (Act on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p>

12) <https://www.traficom.fi/en>

2. 대중매체위원회(CMM, The Council for Mass Media)

대중매체위원회(CMM, The Council for Mass Media)는 1968년 핀란드 언론사 및 언론인들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언론 윤리 위원회이다.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며, 자율 규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이나 조직은 언론이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했거나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중매체위원회에 조사와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명칭	대중매체위원회 (CMM, The Council for Mass Media) ○ 핀란드의 언론사 및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심의 기구 ○ 법적 권한은 없으며, 자율 규제 방식으로 운영 ○ 회원사(언론사 및 기자)는 윤리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설립	1968년
역할	언론 윤리 및 언론인 직업윤리 해석 및 수호, 표현의 자유 및 출판의 자유 보호, 시청자 민원 처리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위원 13명 (8명 언론 및 미디어 분야 전문가, 5명 일반 대중 대표, 임기: 3년) 위원장: 대중매체위원회 운영 그룹 (Managing Group)에서 임명된 미디어 분야 전문가 대중 대표: 위원회 자체 선출, 미디어 기업 소속 인물 배제
운영 원칙	위원회 회원 모두가 서명하고 승인한 대중매체위원회 (CMM) 기본 협약에 따라 운영됨

언론이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대중매체위원회(CMM)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윤리 원칙 위반이 확인되면, 위원회는 해당 매체에 관련 통지문을 발행하며, 이를 받은 매체는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특정 경우,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거나 윤리 문제에 대한 정책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평균 4개월 이내에 불만 사항을 무료로 조사하고 처리한다. 단, 익명으로 제출된 신고 또는 게시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사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o 민원 접수 조건

- 언론 윤리 위반 또는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 조사 요청 가능
- 개인·단체 누구나 민원 제기 가능(단, 익명 제보 불가)
- 게시 후 3개월이 지난 콘텐츠에 대한 민원은 접수 불가

o 심의 대상

- 신문, 온라인 미디어, TV 및 라디오 방송(단, 기본 협약 가입 매체에 한함¹³⁾)
- SNS 콘텐츠도 심의 가능(단, 기본 협약에 가입한 매체가 게시한 경우)

o 민원 접수 상세 지침¹⁴⁾

① 민원 제기 개요

- 누구든지 매체가 출판한 콘텐츠에 대해 대중매체위원회(CMM)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절차는 빠르고 공정하며 무료로 진행됨
- 불만 사항은 CMM 기본 협약 위반과 관련되어야 함
-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된 불만 사항은 위원회의 공식 성명서 확인이 필요
- 불만 사항은 온라인 전자 양식 제출(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허용)

② 자율 규제 범위 확인

- 해당 매체가 CMM의 자율 규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함
- 위원회 관할이 아닌 불만 사항은 기각됨
- 게시 후 3개월이 지난 콘텐츠에 대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불가(온라인 콘텐츠 포함)

③ 민원 제기 준비

- 저널리스트 지침¹⁵⁾을 참고하여, 어떤 윤리 조항이 위반되었는지 명시해야 함
- 중대한 오류에 대한 불만은 먼저 해당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해야 함.
- 대리신고 시 서면 동의서 제출 필요(예: 개인 정보 침해, 부정적 홍보 관련 불만)
- 관련 기사, 서신 등의 증빙 자료 제출 필수(온라인 기사 링크만으로는 부족)
- TV·라디오 프로그램 관련 민원은 방송 시간·채널 정보 명시 필수

13) 대다수의 핀란드 언론은 위원회의 기본 협약에 가입(<https://jsn.fi/en/what-is-the-cmm>)

14) <https://jsn.fi/en/how-to-complain>

15) <https://jsn.fi/en/journalists-guidelines>

- 위원회는 불분명한 불만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④ 민원 형식 및 처리 과정

- 최대 5,000자(A4 3페이지 이내)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 신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법적 소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함
- 불만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필요 시 위원회 의장이 기각할 수도 있음
- 모든 신고자는 서면 답변을 받게 되며, 이메일 제출 시 이메일로 답변이 전달됨

⑤ 개인정보 보호 및 공개 여부

- 신고자의 이름은 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음. 하지만 완전한 비밀 유지는 보장되지 않음.
- 해당 언론사는 신고자의 이름을 알 수 있음
- 민감한 사건의 경우, 의장이 요청에 따라 자료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
- 불만이 제기된 자료는 보관되며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방송 서비스 권리 장애인 방송과 재난 방송

1. 장애인 방송

핀란드는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규정과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이 미디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다.

- o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vision of Digital Services, 306/2019)¹⁶⁾
 - 2019년 4월 시행된 법으로 핀란드 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함.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업¹⁷⁾도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함
 - 장애인, 고령자 및 기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해 국제 표준인 WCAG 2.1 AA¹⁸⁾ 수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야함.
 - 장애인을 위한 자막, 수어(수화), 화면 낭독기 지원 등이 포함됨.¹⁹⁾

16) <https://www.finlex.fi/fi/laki/smur/2019/20190306>

17) 은행, 보험, 대중교통 기관 등

18)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은 웹 콘텐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표준 기준임

19)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2019/20190306>

- o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Act on Audiovisual Programmes, 710/2011)²⁰⁾
 - 미디어 콘텐츠의 제공, 규제 및 접근성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의 접근성과 평등한 기회 보장 내용을 포함함.
 - 청각 장애인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화면 해설, 수어(수화) 지원 제공을 요구함
 - 동등한 미디어 접근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 제공을 명시함
 - 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접근성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 o 핀란드 방송법(Act on the Finnish Broadcasting Company, 1380/1993)²¹⁾
 - Yle의 공적 서비스 임무 명시
 - 소수집단 및 특정 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비상 상황에서의 원활한 정보 전달 보장을 포함함

- o 유럽연합(EU) 접근성 지침 (European Accessibility Act, 2019)²²⁾
 - 디지털 서비스뿐만 아니라 물리적 제품, 상점, 금융 서비스,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되며, 유럽연합 전역에서 일관된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TV, 온라인 미디어,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접근성 강화를 포함함
 - EU 회원국은 2022년까지 해당 법을 국내 법률로 시행해야 하며, 2025년까지 모든 EU 회원국에서 완전한 시행을 목표로 함(핀란드는 2019년에 시행)

핀란드에서는 주요 방송 서비스 제공자들이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송사인 Yle(Yleisradio)는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장애인들이 방송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o Yle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서비스²³⁾
 - 자막 제공 :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해 모든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자막 제공, 자막 서비스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핀란드어, 스페인어, 사미어 등 여러 언어²⁴⁾로 제공됨.
 - 수어(수화) 통역 : 모든 뉴스 및 선거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수어(수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수어 토크쇼 프로그램(the sign-language talk show Mikaela & Thomas)을 제작·제공함
 - 화면 해설 서비스²⁵⁾ :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서비스 제공

20) <https://www.finlex.fi/fi/laki/smur/2011/20110710>

21) Yle's Annual Report 2023, Yleisradio Oy, p. 25

22) <https://commission.europa.eu>

23) Yle's Annual Report 2023, Yleisradio Oy, p. 28-29

24) 핀란드어, 스웨덴어, 북부 사미어, 이나리 사미어, 스콜트 사미어, 핀란드 수어 및 핀란드-스웨덴 수어, 로마니어, 카렐리아어, 영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 웹사이트 접근성 지원 : Yle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Yle Areena)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여 설계됨.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리더 호환성을 지원하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도 제공함
- 다양한 콘텐츠 형식 지원 : 장애인들이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오디오 콘텐츠, 비디오 콘텐츠, 팟캐스트 등 다양한 미디어 형태로 방송을 제공함

2. 재난 방송

핀란드에서 재난 방송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핀란드에서 재난방송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 o 핀란드 방송법(Act on the Finnish Broadcasting Company, 1380/1993)²⁶⁾
 - Yle 공적 서비스 임무 명시
 - 소수집단 및 특정 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비상 상황에서의 원활한 정보 전달 보장을 포함함
- o 텔레비전 및 라디오 운영에 관한 법률(Act on Television and Radio Operations, 744/1998)²⁷⁾
 - 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공영방송 Yle의 긴급 상황에서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음
- o 전자통신법 (Act on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917/2014)²⁸⁾
 - 긴급 상황에서 통신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함
 - 재난 상황에서 국민이 통신 서비스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핀란드는 사회적 안전과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효과적인 재난 방송 시스템과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 방송은 주로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Yle(Yleisradio)는 재난 방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 재난 대응 체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 o Yle(Yleisradio)
 - 긴급 재난 방송 및 실시간 정보 제공 : 국가 위기 상황에서 즉시 방송을 시작하고, 재난 상황에 대한 지침과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25) 화면에 등장하는 시각적 내용을 음성으로 설명해 주는 서비스로, 시각 장애인이 방송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26) Yle's Annual Report 2023, Yleisradio Oy, p. 25

27) <https://www.finlex.fi/fi/laki/smur/1998/19980744>

28) <https://www.finlex.fi/fi/laki/smur/2014/20140917>

- 공공안전 지원 : 정부와 협력하여 피해 예방, 대피 지침, 안전 수칙 등을 제공함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 : TV, 라디오,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
 - 장애인과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 재난 방송에서 자막, 수어(수화) 통역, 오디오 설명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과 취약 계층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o 교통통신청(Traficom, Finnish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gency)
- 핀란드의 교통 및 통신 관련 서비스 운영과 규제 기관으로 재난 방송 시스템을 관리
 - 교통 시스템 관리 및 대응 : 재난 상황에서 교통망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며, 교통 통제 및 대체 경로 안내, 응급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지원함
 - 통신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 긴급 통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 통신 네트워크 관리하여 응급 구조 활동과 정부 간 소통을 지원함
 - 긴급 통신 서비스: 재난 상황에서 긴급 통화 서비스 및 경고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함
 - 비상 경고 및 알림 시스템 운영 : 위험 경고 메시지를 방송하고 모바일 경고 시스템 관리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실시한 경고를 제공함
 - 국제 협력 및 조정 : 국제 재난 대응 및 교통·통신 협력을 통해 다른 국가와 협조하여 재난에 대응함
 - 재난 대응 훈련 및 준비 : 교통·통신 분야에서 재난 대응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주관하여 신속한 대응을 준비함

핀란드는 재난방송을 중요한 공공 안전 도구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필수적인 재난 정보를 제공한다. Yle와 같은 방송 기관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며, 모바일 경고 등 다양한 경고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핀란드는 법적 규제와 기술적 발전을 통해 재난방송의 정확성, 신속성,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시청자 권익 보호의 또 다른 중심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최근 많은 국가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핀란드는 이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핀란드는 법적 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허위정보를 판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법적 대응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자리 잡았다.²⁹⁾

29) 김주희,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허위정보 대응: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할과 시사점」, 행정포커스 vol 171, 한국행정연구원, 2024, p. 48

정책과 제도만으로 시청자의 권익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그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청자 권익 보호 제도를 소개하는 국가로서 핀란드에 주목한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가장 미디어 교육이 발전한 나라로 알려진 핀란드는 오래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교 정규 과정에 포함해 발전시켜왔다. 1960년대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1970년대부터 국가 기초 교육의 핵심 커리큘럼이었다. 그리고 1972년에는 처음으로 학교 교과 과정의 원칙으로 미디어에 대한 발견과 해석, 비판적인 채택,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시켰다.³⁰⁾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투입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 간 폭넓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기획·실행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 핀란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강점³¹⁾

o 교육의 다양한 제공과 폭넓은 활용

-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미디어 교육을 실천하고 개발함
- 실천적 교육 정보, 학습 자료와 지침, 실행 모형 등 다양한 자원을 공적으로 이용하는 다학제적 (多學際的, multi and interdisciplinary) 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미디어 역량이 다양한 직업 기본 교육에 통합됨

o 미디어 교육의 전통

- 대중매체 교육, 의사소통 교육 등을 시작으로 195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옴
- 핀란드 민주주의와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대규모의 사람과 집단이 미디어교육 활동에 연계됨

o 국가 전략화 된 미디어 교육과 재정 지원

- 공공도서관법(The Finnish Public Libraries Act) 등 관련 법률과 미디어교육 공공기관 국립시청각 연구소 (KAVI, 2012년 설립)을 통한 미디어교육 체계 제공
- 공공과 민간의 자금 지원

o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변 확산에 따른 미디어에 대한 신뢰 향상

- 미디어 교육은 핀란드의 언론 자유와 미디어에 대한 높은 신뢰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됨

30) 진민정 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융합적 접근」,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p. 75

31) 핀란드 교육부,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국가 미디어교육 정책」, 최원석 옮김,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p. 35-36

2. 핀란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가치와 원리³²⁾

핀란드의 미디어 교육은 유엔 세계 인권선언²⁹, 인권에 대한 유럽협약(63/1999)³⁰, 그리고 특히 아동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³¹에 기반을 둔다. 이처럼 분야별 가치 기반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도 적용된다.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다음의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 인간을 적극적 주체로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 리터러시, 인권, 윤리의 향상
- 다양성과 평등 : 평등을 장려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특성 존중
-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 : 사회 및 환경으로부터 발전 방향성을 얻고, 바람직한 미래 전망에 기여

3. 핀란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장의 주체들³³⁾³⁴⁾

핀란드는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정부 조직, 협회, 문화·예술 관련 기관, 종교 단체, 교육 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고 운영한다. 이러한 다분야, 다학제적 활동은 핀란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환경 변화에 따라 주제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발전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 교육문화부
 - 미디어 리터러시 진흥 지원, 미디어 교육 관련 법률 및 정책 개발
- 국가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OPH)
 - 유아교육부터 기본·고등교육, 돌봄 교육 과정, 직업 훈련 및 역량 기반 자격까지 아우르는 교육 체계 마련
 - 교육 관련 활동 수행, 프로젝트 개발 및 관련 법령 이행 여부 규제
 - 2014년 확정된 OPS2016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 미디어 리터러시 진흥 기반 마련
- 국립시청각연구소(KAVI, The 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³⁵⁾
 - 2012 설립, 교육문화부 산하 국가 미디어교육 공공기관
 - 영화와 텔레비전, 라디오 프로그램 보존과 관련 연구, 시청각문화의 증진 역할 수행
 - 무료 미디어교육 웹서비스 mediataitokoulu.fi, pelikasvatus.fi, ikaraja.fi 등 운영
 - 전국적 미디어행사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Media Literacy Week), 핀란드 게임 주간(Peliviikko, Finnish Game Week) 주관

32) 핀란드 교육부,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국가 미디어교육 정책」, 최원석 옮김,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p. 37-39

33) 핀란드 교육부,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국가 미디어교육 정책」, 최원석 옮김,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p. 50-73

34) 진민정 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융합적 접근」,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p. 77-79

35) <https://kavi.fi/en/>

o 기타 정부 부처 및 기관

- 법무부 : 혐오 표현과 범죄에 반대하는 '반 혐오 프로젝트(AgainstHate project, 2017~2019)' 진행 등 민주주의 포용과 영향력 관점에서 정책과 법률 마련
- 교통통신부 : '미디어 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정부 결의안(2018)' 등 정치적·전략적 정책과 법률 마련
- 내무부 : '폭력적 급진주의 및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2016)을 통해 폭력적 급진주의 예방 수단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의 중요성 강조
- 핀란드 경쟁 및 소비자 기구(The Finnish Competition and Consumer Authority, KKV)는 소비자 교육 수단으로 미디어 및 광고 관련 자료 제작
- 핀란드 교통통신청(Traficom), 핀란드 국립사이버보안센터(The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 안전한 미디어 사용관련 교육자를 위한 안내 지침 및 정보 제공
- 디지털인구자료청(The Digital and Population Data Services Agency) : 디지털 사회에서 자료 보호 및 활용 방법 제공, 디지털 지원 서비스 제공
- 데이터 보호 옴부즈맨(The Data Protection Ombudsman) :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제, 주의 사항, 권리와 책임에 관련 국민들의 인식 제고
- 공공도서관 : 미디어교육 가이드라인 제작 및 제공, 핀란드공공도서관법(The Finnish Public Libraries Act)에 따라 정보 가용 및 활용을 다양한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시민성 증진,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제고 등의 의무를 가짐

o 전국 단위 협회 및 네트워크

- 핀란드미디어교육위원회(Finnish Society on Media Education, FSME) : 핀란드 내 미디어 교육 기관 네트워크 구축, 연구,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프로젝트, 워크숍, 학술 교류
- 미디어교육센터 메트카(Metka) : 미디어 교육 활동 수행
- 쿨룰루키노(Koulukino, 영화학교) : 미디어 교육의 일환으로 영화 교육 장려
- 만네르하임리그, 세이브더칠드런, 핀란드부모연맹, 4H기구 :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미디어 교육 활동
- 핀란드평생학습재단, 핀란드연금연맹, 노인복지를 위한 중앙연합 : 성인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미디어 교육 활동
- 미디어아트 및 영화보급 기관 : 미디어 및 영화 교육 프로젝트 운영, 저작권 관련 미디어 교육 개발
- 시청각 분야 전국 협회 : 미디어 교육관련 지역 활동 개발, 대표사업 의사소통교육협회 주최 미디어 캠프 비에카스(Viekas)
- 코피오스토(Kopiosto) : 교육기관 대상 저작권 교육 자료 제작, 교육기관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TV 프로그램의 이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제공
- 핀란드지역청소년연합 :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및 역량 증진 교육 제공

o 언론기관

- Yle(핀란드 공영방송) : 웹사이트 운영을 통한 미디어교육 자료 무료제공, 자율적인 미디어 학습을 위한 '디지털넷'(Digitreenit), 11~18세 청소년 대상 '윌레 뉴스 교실(Yle Uutisluokka) 등
- 핀란드신문협회 : 신문사와 학교 간 협력 사업 '교육에서의 신문(Newspaper in teaching, Sanomalehti opetuksessa)' 활동, 신문 주간(Newspaper Week) 20년 넘게 운영, 미디어 교육 자료 제공
- 핀란드정기간행물협회(Aikakausmedia) : 교육 목적의 미디어 교육자료 적극적으로 생산. 회원사가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 사용 촉진, 미디어 활용 연구 진행 및 정보 제공
- 기타 언론사 : 미디어리터러시 캠페인 무료 송출을 통한 미디어 교육활동 지원, 언론사 뉴스 보도 관련 저널리즘 교육을 기본 업무로 함.
- 온라인 서비스와 플랫폼 제공 회사 : 플랫폼 내 미디어 교육콘텐츠 제공 및 교육기관 재정적 지원

o 대학 등 교육 기관

- 문화, 예술,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관련 전공이 개설된 핀란드 대학 10곳 가운데 8곳이 미디어교육과 관련해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진행 중
- 라플란드대학(University of Lapland) 미디어교육 석사 주전공, 헬싱키대학(University of Helsinki) 부전공 개설, 미디어교육 관련 박사 학위 취득가능
- 일라플란드대학 미디어교육 방법 및 연구관련 미디어교육 허브(Media Education Hub) 운영하여, 국제 연구 기관과 해외 대학에 관련 연구 자료 제공

4. 핀란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특성

o 멀티 리터러시(Multi literacy)로의 확장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멀티 리터러시'로 확장한 것은 핀란드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이다. 2016년 발표된 새로운 국가 교육과정에 '멀티 리터러시(multi literacy)³⁶⁾'라는 이름으로 미디어 교육을 학교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핀란드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이 각 조직의 전문성, 인력, 자원, 시설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융합적인 결과물을 내고 있다.

현재 핀란드 미디어 교육의 중요 기반은 '멀티리터러시'와 'ICT' 능력을 국가교육과정안(National Core Curriculum)의 핵심역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미디어 교육 참여자들은 학교 수업 외에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기획한다. 결과적으로 영유아 및 초중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근거가 된다.

학교와 공립도서관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정보·문화·예술·기술 기관과 시설에서 교사, 청소년 활동가, 연구자,

36) 멀티 리터러시 :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과 실천 중심의 교수법이 결합된 개념

시민단체, 공무원, 사서, 언론인 등이 각 소속 기관 전문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한다.³⁷⁾

o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바탕으로 한 협력

‘3. 핀란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장의 주체들’에서 소개했듯이 핀란드에서는 여러 기관과 참여자들이 실천적 교육을 지원하는 학습 자료와 안내서, 수업 모형, 시청각 자료 등 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이 개발되고 생산된다.

이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은 국립시청각연구소(KAVI)가 주관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Media Literacy Week)’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행사는 2003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국적 행사로 약 50여 개의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각종 이벤트와 교육 자원을 제공하고,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학교, 유치원,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를 포함해 매년 전국의 1,500~2,000개 지역 단체들이 참여 중이다. 이 기간 동안 참여 단체들은 교육 자원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또한 무료로 사용가능한 자원들은 서로 다른 그룹과 관련 전문가들에게 맞춤 형태로 뉴스레터에 담겨 제공된다. 이 행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미디어 교육이 공유된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일반 대중과 의사결정자 모두의 인식을 제고시킨다는 데 있다.³⁸⁾

o 융합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³⁹⁾

핀란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서 융합의 의미는 지식(knowledge), 형식(format), 조직(party) 등 3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교육에 어떤 리터러시 요소를 복합적으로 포함했는지, 두 번째는 어떤 형식을 결합해 교육 및 자료를 만들었는지, 세 번째는 어떤 분야나 기관이 협력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융합적으로 접근했는지를 의미한다.

융합형 미디어 리터러시 대표 사례로 핀란드 공영방송사 Yle의 ‘트롤 공장(Troll Factory)’을 소개하려한다.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각종 허위정보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교육이다. 일방적인 교육 전달 방식이 아닌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는 매개를 통해 스스로 허위정보를 판별하고 경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속보, 탐사보도, 서비스 디자인, 데이터 과학,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과 형태를 통해 재미를 가미하여 다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융합형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37) 진민정 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융합적 접근」,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p. 76

38) 진민정 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융합적 접근」,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p. 78-79

39) 진민정 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융합적 접근」,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p. 79

허위정보 영향력 체험 게임 '트롤 공장 (Troll Fac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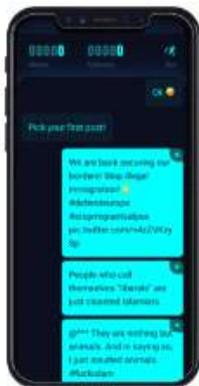
배경

러시아의 정보 공격과 극단주의 선전·선동, 반이민 정서를 포함한 허위 정보 확산을 경계하기 위해 제작됨

내용

- 사용자가 직접 허위 정보 유포자의 역할을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 익명의 보스에게 지시를 받아 일주일간 불특정 다수에게 선동 메시지를 퍼뜨리는 방식
-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원리, 허위 정보에 대한 경각심, 정보 유포의 문제점
디지털 정보 제작자의 윤리적 책임, 혐오·차별적 메시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교육함

유럽 디지털 미디어 어워드 (2020) 디지털 뉴스 미디어 혁신 부문 선정



Step 1

선동 방법 선택



Step 2

소셜미디어 광고 집행



Step 3

메시지 및 이미지 조합의 영향력 체험



Step 4

정보 전파 범위의 변화와 관련된 알고리즘의 시각화

o 모두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의 변화와 더불어 핀란드에서도 미디어 교육의 대상 또한 확대되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량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각 계층에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2000년대 들어 핀란드는 성인을 위한 미디어 교육 강화에 주력하였다. 평생 교육을 통해 성인들이 최신 기술 발전과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 교육도 활발하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마을교육공동체라 할 수 있는 만네르하임리그(MLL)는 '어린이와 미디어 : 디지털 교육을 위한 7가지 팁'이라는 교육 자료를 제작하였다. 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가 아이들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서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게임,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미디어 교육 사안을 정리했다.

핀란드의 미디어 교육은 그동안 어린이와 노년층과 같은 취약 계층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지금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9년 12월, 핀란드 교육문화부가 발표한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안에 따르면, 개정된 정책의 핵심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중요한 시민적 역량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처럼 핀란드는 미디어 리터러시 자체를 시민의 역량으로 이해하며, 모든 사람들이 포함하여 교육한다는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⁴⁰⁾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환경 속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정보 출처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신뢰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비판적 사고는 시민들이 허위 정보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며, 정보의 진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한다.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은 허위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별하고 사회적 논의에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핀란드는 허위 정보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고, 정보 기반의 민주적 논의를 촉진하며,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40) 진민정 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융합적 접근」,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p. 77-79